

서북권

•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.0% 감소, 지난달보다 소폭 축소

- 전년동월대비 -2.0% = 소매업의 기여도 -2.2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0.2%p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※ 관련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)

•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4.3% 감소, 숙박·음식점업 0.4% 증가

- 소매업은 음식료품·담배의 소비호황 지속, 종합소매의 소비가 증가로 전환되면서 내림세가 완화
 - 11월 소비증가 업종은 음식료품·담배, 종합소매업, 기타상품
 - 11월 소비감소 업종은 무점포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, 기타가정용품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연료 등
 - 무점포소매업의 큰 폭의 하락은 일부 업체가 서북권에서 이탈한데 기인
-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업이 증가세를 유지하여 지난달과 같이 소비 증가
 - 11월 소비증가 업종은 숙박업, 음식점업
 - 11월 소비감소 업종은 주점·커피전문점업

